



세월호 사고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15일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4층 선미다인실의 천장 패널 10개를 크레인을 이용해 바지선으로 인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기약없는 세월... 눈물조차 말라간다

## '세월호' 두달

실종 12명 애타게 기다림  
불안·초조 속 하루하루 버티  
봉사자들 여전히 가족 걸 지켜  
뱃길은 예전모습 점차 되찾아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한 지 두 달이 됐지만 진도군 팽목항에 머무르고 있는 가족들은 여전히 불안함과 초조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지난 14일 찾은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은 출렁 눈물조차 말라버린 12명의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아는 듯 무거운 침묵이 휘감고 있었다. 섬 사람과 관광객들의 이동이 시작됐지만 예전의 활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팽목항 선착장 좌우로 끝없이 이어졌던 하얀색 천막들은 한 곳으로 모두 옮겨졌다. 실종자 가족들이 머물던 텐트, 참사 이튿날부터 내려와 배식 봉사를 했던 밥차들, 약품 제공 천막들, 물리치료 봉사활동 천막, 긴급 심리 치료 봉사 천막들로 발디딜 틈 없던 팽목항 주변은 취재진과 자원 봉사자, 실종자 가족들이 대폭 줄어들어 적막감마저 감돌았다.

하지만 봉사자 가운데 상당수는 여전히 팽목항과 체육관에 머물며 실종자 가족들에게 건넬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낚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 실종자 가족 곁을 지키고 있다. 아직 차디찬 바닷속에 갇힌 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진도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참사 초기부터 봉사자들과 관계 공무원들은 "마지막 1명의 희생자가 가족의 품에 돌아갈때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재까지 실종자 명단에 오른 탐



지난 14일 진도 팽목항 방파제 난간에 실종자 가족들이 놓아둔 기타와 축구화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 팽목항 한 켠에 희생자들을 위해 차려진 상 뒤로 섬 주민들이 여객선에 승선하고 있다. /진도=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승객은 단원고 학생 6명, 교사 2명, 승무원 1명, 일반인 3명 등 모두 12명. 한명, 한명 모두가 안타깝고 가슴아픈 사연을 지닌 채 여전히 차가운 바닷속에 갇혀있다. 사고 당일 다른 승객들의 도움으로 구조된 5살 짜리 여자아이의 아버지와 두살 위 오빠는 여전히 겁먹은 바다에 있고 제자들을 구조한 뒤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한 교사 2명도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단원고 학생 6명도 여전히 세월호가 가라앉은 바닷속에 있다. 한 여학생은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수학여행을 가지 않으려다 어머니의 거듭된 권유로 세월호에 올랐고, 4대 독자인 남학생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 당시 3층에서 음식을 준비하던 여성 조리원도, 제주도로 귀농하기 위해 배에 올랐던 일반인 탑승객도 아직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은 두 달째 집을 떠나와 낚선 진도의 한 체육관에서 잠을 자고 팽목항과 사고 해역 바지선에 올라 돌아오지 않는 자식(가족)을 부르며 하루 하루를 버티고 있다. 두 달 전 수학여행

을 간다며 전족 삼기된 표정으로 손흔들고 집을 떠난 아들 딸들은 지금껏 엄마 아빠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있지만, 부모들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XX는 방파제에 신발을 뒀더니 사흘째 되던 날에 거지말처럼 돌아왔는데", "X×야, 이제 그만 집에 가자. 어서 돌아와서 엄마 아빠한테 노래 불러줘야지" 엄마 아빠들은 '꼭 돌아와 달라'는 바람을 담아 아들이 사고 싶어했던 운동화와 갖고 싶어했던 기타와 축구화, 아들 딸이 좋아했던 컵라면, 초콜릿 등을 팽목항 방파제 난간에

## 선거운동 혐의 광주시 대변인 검찰, 1년6월형 실형 구형

현지 시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광주시 대변인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공안부(양종진 부장검사)는 13일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욱현 부장판사)

부지런히 올려받던 두달째 희생자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세월호에 탔던 막내 아들을 기다리는 한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만 와준다면 6개월이든 1년이든 아니 10년이든,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끝을 모르고 기약이 없다는 게 제일 두렵습니다"라며 "선원들을 무슨 죄로 디스킨다는 등 재판이 뭐고 제겐 지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아들이 꼭 돌아만 와줬으면..."이라고 말하는 그의 눈은 축축히 젖어있었다.

/진도=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심리로 열린 광주시 대변인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전 뉴미디어팀장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다른 4명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외 함께 기소된 6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열린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세월호 국선변호인들 속앓이

인터넷 악플 잇따르며 곤혹  
법조계 "입장 알리고 보호를"

세월호 선원 15명의 변호를 맡은 국선전담변호인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지는 변호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공분을 샀던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게 되면서 온갖 악플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법조계에서는 이들 국선전담변호인들의 입장을 적극 알리고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터져나오고 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세월호 선원 15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지난 10일 이후 재판의 변론을 맡은 국선전담변호사 6명 등에 대해 인터넷상 무분별한 악의적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첫 재판이 열린 10일 뒤에는 헌법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12조), 무죄 추정,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27조)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서 "무슨 재판을 하나?", "선원 변호하는 변호인들을 공개하라", "무슨 죄라고 저런 사람들 변호까지 해줘야 하나", "감람도 아니고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 내용을 보고 열 받았다" 등의 댓글이 끊이지 않았다.

또 관련 글이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확산하는 분위기도 형성됐다. 첫 재판에서는 피해자 가족들이 법정에서 선원들을 변호하는 변호인에 대해 항의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형사소송법(33조)에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해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절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의 댓글도 적지 않다. ("선원들의) 변호는 회피해야 하고...", "변호하고 싶나" 등의 댓글이 올라오는 식이다. 이 때문에 "왜 변호사에게 난리냐", "헌법상 어떤 범죄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국선 변호사를 육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 "변호사의 의무, 일이 변호하는 일" 등 국선전담변호사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이해해야 한다거나 이들에 대한 인신공격을 저지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도 잇따랐다.

광주지법도 이 같은 상황을 감안, 첫 재판 때 재판부(부장판사 임정엽)가 피해자·실종자 가족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모든 범죄 혐의자는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받고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할 것을 강조하며 국선전담변호인 등의 취지, 입장을 설명하고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한 고성·육성 등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법조계는 "피해자·실종자 가족들과 국민적 분노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에 대한 악의적 댓글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이들 변호인들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원인과 '물'을 지키지 않아 비롯된 것인 만큼 재판과정에서도 헌법·법률에 규정된 원칙과 '물'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지을기자 dok2000@

백희준 수습기자 bhj@

## 내일 세월호 2차 재판... 20일엔 청해진해운 대표 등

세월호 이준석(68) 선장 등 15명에 대한 2차 재판이 17일 진행된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마무리하지 못했던 선원 4명에 대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에 대한

인정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도 첫 재판과 같은 방식으로 방청권을 교부받은 경우에만 입장을 허용하는 한편, 보조법정을 통해 재판 진행 상황을 중계할 예정이다.

한편, 20일에는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등에 대한 재판도 진행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

## 현금대출금기 코너 갇힌 40대 "보안요원이 사과 안했다"며 행패



○"심야에 30분이 넘도록 현금자동입출금기 코너 안에 갇혀있던 40대 남성이 자신을 구하려 온 보안요원이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망가뜨렸다가 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

○"15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광주에 사는 강모(49)씨는 지난 14일 밤 11시 28분께 술을 마시고 복귀 오차동의 한 은행 현금자동출금기 코너에 들어갔는데 11

시30분이 되자마자 출입구가 자동으로 봉쇄되는 바람에 꼼짝없이 갇혀버렸다는 것.

○"은행 보안요원의 출동이 늦어지자 경찰에도 구조 요청을 했던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안 요원이 문만 열어주고 미안한 기색도 없길래 화끈하게 발길질 한 것이 그만 고정 잠금 장치 파손으로 이어졌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2015. 5월 예정**  
**조공예정**

**한빛타워 분양/임대 비교할수록! 따져볼수록!**

**위치** **가격** **수익성** **넘버원!**

**한빛타워 투자포인트**

- 투자의 안전성** : 신탁회사(아시아신탁) 채택으로 **수분양자 보호**
- 합리적인 분양가 실용적인 설계** : 인근 상가빌딩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 (높은 층고(4.2m~5.4m)로 인한 **입종의 다양화 실현** 전용률 극대화로 **수분양자 이익실현**(1층 66.9%, 2층~4층 71.44%)
- 뛰어난 접근성** : 혁신도시 핵심상권에 위치하여 **고객출입력이 우수한 프리미엄 상가** 5층에 **스카이가든을 조성하여 운동, 휴식공간으로 활용**

**나주혁신도시 내 중심 상권 프리미엄 빌딩**

**한빛타워 분양사무실**

한전 KDN, 농수산물 유통공사, 중앙호수공원

빛가람동 주민센터, 국립전파 연구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주식회사 오 늘**  
**솔로몬 공인중개사**

시행: 한빛가람(유) 책임시공사: 견해종합건설(주) 신탁사: 아시아신탁

**분양·임대문의**  
**061)333-7077**